

시끌벅적 e-스타



'승례문 화재 동영상' 네티즌 가슴 태우다

한 사람의 무모한 행동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국보 1호 승례문, 예전의 아름답고 위풍당당한 모습이 동영상으로 태어나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전소되어 버린 대한민국 국보 1호 송례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동영상은 불길 속에 무너져 내리는 승례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이어 서울 도심을 지켜보면 서있던 송례문의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지나간다. 조명 시설의 불빛을 받으며 환하게 새단장한 송례문의 최근 사진 위에 다시 불꽃에 휩싸여 있는 국보 1호의 모습이 등장한다.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동영상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던 송례문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 속에 '이처럼 아름다웠던 우리의 보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

을까요?'라는 물음이 나온 뒤 동영상이 끝이 난다.

1분 가량의 짧은 동영상이지만 1만3천여 네티즌의 가슴을 깊게 태우면서, 크나큰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동영상은 본 네티즌들은 "저렇게 보안이 싱거우면 뭐하려 국보 1호로 지정했나? 그에 맞는 보안을 철저히 해야지, 참 웃긴다", "미국에서 자유에 여신상이 무너져버려, 파리에서 에펠탑이 무너져버려.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무너졌다. 이제 국민은 전 세계의 조롱 속에서 참피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 이젠 없어졌습니다. 역사속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할말이 없네요. 수백 년 동안 한 자리에서 시대가 바뀌는 것을 내려다 봤었던 송례문은 이제 없습니다"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용수의 패스 칼럼

명절을 보내고 모든 이들이 일상에 복귀했다. 명절에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가는 밭길들이 더 이상 감사와 걱정으로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해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식의 모습이고 싶다. 다음 명절인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만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줄리아 포덴(Julia Fordham)이라는 영국 가수가 1988년에 부른 'Happy Ever After'라는 노래가 있다. 이 곡은 당시 인종 차별에 꼽바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녀는 이 곡에서 남아프리카 현실의 아픔이 아닌

신과 마음의 건강을 아우르는 말인 것이라고, 인생의 꿈을 잘 맺자는 기원이 담겨 있음을 굳이 부연 설명 없이도 알아듣게 된다. 때로는 하찮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상속의 작은 관계들도 인생이라는 커다란 경영 속에서 성실히 운영하고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 중요한 구성원이고 의식 무의식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 느끼게 된다. 우리의 삶은 마음에 따라 예술이기도 하고 행복인가하면 불행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지 않는가?

조각조각 깨어진 거울의 거울을 모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온전히 둥근 거울로 복원하

희망의 음유시인 줄리아 포템

미래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몇 년이 지난 뒤 그녀의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우리를 모두의 소망은 삶을 행복하게 살면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남미 안데스산맥 채주아 인디오들의 독특한 풍습과 의식 중에서 세상을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되면, 본인 스스로 '자발의 날'을 잡아 면 곶과 가까운 곳에 있는 친인척과 이웃들을 불러 돼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하는 풍습이 있다.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사죄를 하고, 서먹하게 밀어졌던 사람들과는 오해를 풀면서, 자신이 병들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이생에서의 모든 인연을 축제의 형식으로 각별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 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듯 흘러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간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끼리 종종 "서로 건강하게 잘 지내자."는 인사를 나누곤 한다. 그것은 몸의 건강만이 아닌 정

는 것이 삶의 완성으로 본다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맷함이 없는 삶을 살다보면 머리가 새하얀 백발이 되었을 즈음 뒤돌아서는 잘살았다고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

줄리아 포템은 단순한 팝 음악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수식어의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가수이다. 잘 포장되고 귀에 익은 매끄러움 보다는 형식적인 틀 안에 있는 음악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음악에의 순수한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1970년대의 조니 미첼이 생각난다.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녀의 흥상적이며 고혹적인 음색을 들으면 줄리아 포템은 음악 안에서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것을 빛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녀의 노래처럼 커다란 외침이 아닌 잔잔한 속에서 희망을 전달하며 산다면 우리들의 인생도 Happy Ever After가 되지 않을까?

/팝컬럼니스트·광주교통방송 '낭만이 있는 곳에' 진행)

리빙 센스

피부 타입에 따른 목욕법 ②

자신의 피부에 맞는 목욕법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 봅시다.

▲중성피부

건성과 지성 중간인 중성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이지만 계절의 변화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중성피부는 큰 트러블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조금은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금방 피부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로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중성피부의 경우에는 1~2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하는 게 좋고, 목욕을 할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 미지근한 물로 씻어 노폐물을 제거해 주세요.

목욕 후에는 로션이나 오일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서 빌리주면 피부에 수분과 윤기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서 피부에 영양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배추, 당근, 고등어, 김, 콜 등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4일(음 1월 8일 甲申)

子 36년생 새벽부터 서둘러라 급한 일이 생긴다. 48년생 뜬 구름 같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60년생 大禍은 없으니 급할수록 돌아온다. 72년생 구설수에 오르니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84년생 생가지도 않은 돈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0, 26

丑 37년생 재물을 나누라 또다시 모아진다. 49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다. 61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 일찍이 소식 온다. 73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85년생 새로운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4, 27

寅 38년생 전쟁은 치열하나 군당이 없는 형국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50년생 세상에 급변해도 지켜야 할 점을 찾아라. 62년생 즉 마고의 진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74년생 생각지도 않은 소비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3, 25

卯 39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으라. 51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후회를 살펴가라. 63년생 독불장군 없으니 상대에게 존중하면 시비는 없으리라. 75년생 대장과 원다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6, 26

辰 40년생 모든 것을 잊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천신하라. 52년생 산 넘어 산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64년생 자신의 주기를 옮길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76년생 비바에 휘말리니 절에라도 가지거나.
행운의 숫자 : 08, 45

巳 41년생 우부는 시끄러워도 내부는 평안하다. 53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65년생 사소한 연정이 있으나 나빠진 새를�다. 77년생 家率이 늘어나지면 멎을 것이 없구나.
행운의 숫자 : 05, 33

午 42년생 箕衣夜行 격이니 빛이 나지 않는다. 54년생 어려움은 딱히 지혜는 샘솟는다. 66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공포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다. 78년생 자신의 능력을 모한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9, 37

未 43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 있게 생활하라. 55년생 결장을 내렸어도 다시한번 점검하라. 67년생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형국에 빠진다. 79년생 고통은 오히려 성숙을 드는다.
행운의 숫자 : 07, 29

申 44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56년생 모든 짓에 흥미를 쏟아내면 해결된다. 68년생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마음은 편하다. 80년생 외출을 삼가 하면 회는 불러가고 재물을 들여온다.
행운의 숫자 : 22, 27

酉 45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라. 57년생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69년생 병은 자를 때 잡힐수록 81년생 가능한 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해로운 일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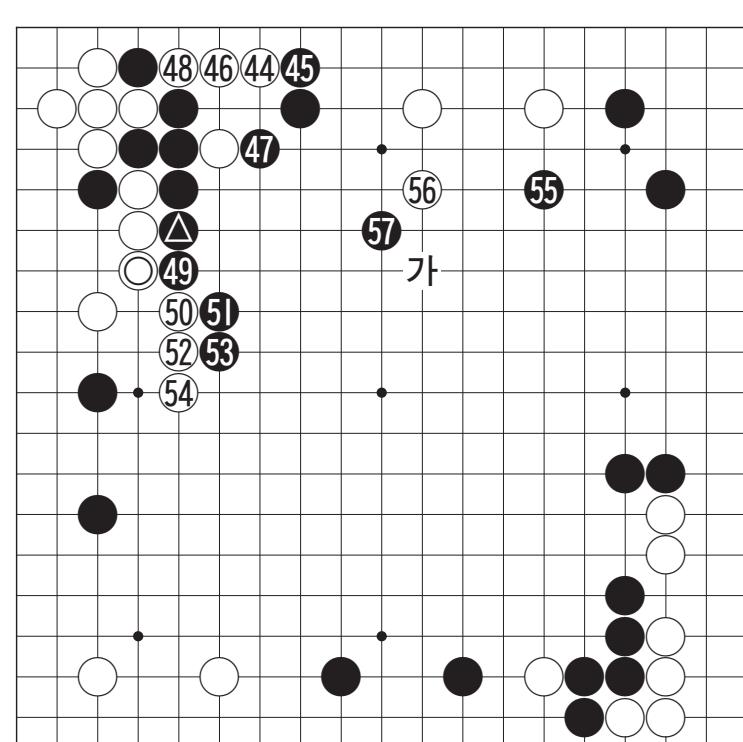
戌 46년생 지나간 일을 다시 새겨보라. 58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마라. 70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나쁜 일은 없다. 82년생 자신을 모한 고지질하는 수하인이 이 사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40

亥 47년생 직장과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 온다. 59년생 주변인에게 모진 일을 시킬 수도 있으니 상식적으로 행하라. 71년생 다른 밤에 재 뿌리는 암 사람을 조심하라. 83년생 한 시가 바쁘니 시간을 아껴 써라.
행운의 숫자 : 09, 36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브랜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광주 기우회

대향전

통렬한 침입 4보(44~57)

白 김희관 5단
(무석회)

黑 임상빈 6단
(광우회)

백 44가 김희관 5단
진작부터 노리고 있던
통렬한 침입이었다.
이 수 때문에 앞서 설
명한 바와 같이 흑 ▲
와 백 ◎의 교환이 악
수라는 것이다.

이 교환이 없다면 이후 흑◎의
자리에 붙여가는 맥집이 있다.

임상빈 6단 급소를 얻어맞고 한참
을 생각하다가 흑 45로 막고 47까지
쉽게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미
지근한 수로 백 48까지 실리를 빼앗
기고 말았다. 45로는 '참고도'의 흑 1
로 붙이는 변화구를 구사하고 싶다.
백 2로 받아준다면 흑 3으로 붙이는

공격해서 대가를 얻어내야만 한다.
임상빈 6단 흑 53까지 밀어 악간의
세력을 만든 다음 흑 55로 씨워 공격
나팔을 불어댄다.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가'로 씨우

는 것이 제일입니다.

강수가 성립하여 5까
지 백이 곤란하며 또
백이 다르게 응수하더
라도 반면을 복잡하게
이끌 수가 있다.

이제 실리를 빼긴
백은 상반 백 두점을

공격해서 대가를 얻어내야만 한다.
임상빈 6단 흑 53까지 밀어 악간의
세력을 만든 다음 흑 55로 씨워 공격
나팔을 불어댄다.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가'로 씨우

는 것이 제일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박영훈과 준우
승 이창호는 자동 출전하며, 한국에 배
분된 국가 시드 5명 중 절반 이상은 팽
킹제로 나가게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세돌, 목진석, 조한승이 선정됐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

지난 12일 팽킹 순으로 치러진 강
동윤-최철한 9단, 이영구-박홍석 5단
이 벌인 선발전에서 각각 강동윤, 이
영구가 이겨 남은 2장의 출전권을 따

냈다.